

중학생 진학진로 인식 분석

- 서울지역 중학생 희망 고교계열별 비교 -

오석영(吳昔泳)*

임정만(林正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계열별로 개인 특성 및 진로, 학교, 가정, 개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33개교의 중학교 3학년생 1,9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특목고 및 자율고 진학희망자들의 개인 특성(학업성취, 가정배경) 및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은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특성 및 인식수준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고 진학희망자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고교계열화가 학생의 학업성취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서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중학생, 고교 다양화 정책, 고교계열화, 진로 인식

* 제1저자, 교신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및 「고교 선택제」를 통해 중등교육의 다양성 및 특성화를 모색하였다. 1974년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평준화를 통한 학업성취도의 하향화, 다양성을 무시한 진로교육, 사학의 자율성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차성현 외, 2010; 윤종혁, 2003). 2008년 이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서울시의 고교선택제와 병행되어,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긍정적 기대와 달리, 일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새로운 학교의 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권효진, 김수영, 박선희, 김경숙, 2012; 손준중, 2010; 김영화, 이정희, 2003). 특히 최근 서울 지역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학교유형별 학생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성적,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 등의 개인 변인이 학교유형별로 뚜렷하게 서열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권효진 외, 2012), 학교 계급화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고교유형별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선택은 중학교 단계 이전에 형성되며(이은아, 2007),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진학계열별 이미 차이를 보이며(오석영, 2012a), 중학교 때의 사회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고교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직업포부수준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김경년, 2011), 중학교 단계 학생들의 진학 희망 계열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계열별 진로진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교계열을 일반계 및 직업계로 단순화하거나(안선영, 이경상, 2009; 주동범, 2001; 오석영 2012a), 고등학교 재학생간 인식차이를 계열별로 비교 분석해 왔기 때문에(권효진 외, 2012), 고등학교 계열별 인식 차이가 교육 내용 및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단계부터 이미 상이한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시작된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 희망 계열별 특성 및 진로 인식을 분석하여 예비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사회경제적 차이 진학 희망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계열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나누어, 희망 계열별로 개인 특성(학업성취 및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 희망 계열별로 학생들이 진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개인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보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희망하는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학업성취 및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희망하는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학교 및 가정생활, 개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분석

1.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교육의 수월성 제고, 실질적 교육경쟁 유도, 학교 선택권 확대, 일반고의 교육력 개선, 상향평준화, 입시제도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사고 100개를 설립하고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통해 현재 고교계열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의 4유형으로 정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고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된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하며, 각각의 교육목적에 갖는 특성을 가지며,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된다. 또한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하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2011년 현재 99.7%를 감안하면(교육통계연보, 2012),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택이며, 이러한 선택이 선택 이후 학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eyns, 1974; Lucas, 2001; Feingberg & Solitis, 2009). 이와 같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계층화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다양한 형태로 지지 받았는데,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이 고교유형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미 중학교 단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교 다양화가 다른 직업포부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경년, 2011), 고교 다양화가 학생의 능력보다는 계층 간 분리를 더 공고히 하며, 분리된 계층별 차별적인 학력 자본이 투여되어 계급 간 차이를 공고히 한다고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강영혜, 박소영, 2008; 손준중, 2010). 과거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유형과 차별되게, 이번 고교 다양화 정책은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독일과 같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복선형 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고 강화를 통해 수평적 계층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평적 계층화는 대학진학을 우선시하는 현 사회적 풍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양적 포화를 야기하고 이를 통한 수직적 계층화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Lucas, 2001). 다시 말해, 교육의 양적 수요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경우 교육에 투자되는 자본은 교육의 질과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입되어 교육의 질적 분화(Efficiently Maintained Inequality)를 유발하고 이를 통한 수직적 계층이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다(손준중, 2010). 따라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러한 질적 분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진학 희망 계열별 개인특성과 진로인식

중학생 시기는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Super(1980)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중학생 시기에 맹목적인 욕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환상기(fantasy stage)에서 벗어나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 및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는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 개인특성과 진학 희망계열 별 차이를 본 연구는 많지 않다. 안선영과 이경상(2009)은 고교계열별 진학 특징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인문계-진학희망, 전문계-진학희망, 전문계-취업희망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진로 결정요인과 진로결정 이후 경험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문계-진학희망 유형을 선택하며, 전문계-취업희망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아관과 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고교유형별 재학생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 아버지학력과 월평균 가계소득에 있어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미 계열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권효진 외, 2012).

한편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진로관, 교육관, 그리고 직업관에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 본인의 특성, 계획의 실천, 취직의 용이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주동범, 2001). 한편 이은아(2007)은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진로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관이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보다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 더 뚜렷한 진로관을 보이며, 본인 및 부모의 교육포부와 가정에서 진로에 대한 대화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낮은 교육포부는 진로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경년(2011)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고교계열에 따른 고등학

교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은 이미 중학교시기에 차별적으로 형성되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미 낮은 직업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선발과정이 이들의 직업포부에 대한 생각과정을 가속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오석영(2012a)는 중학생 진로성숙도에 있어 전문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간의 차이를 보아 이를 확인했다.

3. 학교 · 가정 · 개인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들과 함께 학교관련 변인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학교의 가치 등이 연구되었는데(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오석영, 2012a; 2012b),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이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문미란, 정진선, 2005; Bachhuber, 1992). 또한, 학교생활태도가 적응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래, 2007). 예를 들어, 안선영과 이경상(2009)은 고교계열별로 학교생활 적응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계-취업희망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인문계-진학희망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 대한 인식 변인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에 대한 인식을 본다.

한편 가족관련 변인은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숙, 2005).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아(2007)는 부모의 교육포부 및 가정에서 진로에 대한 대화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서진희와 이제경(2009)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진로행동이 진로 결정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구체적인 진로제공보다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진로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Keller와 Whiston(2008)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행동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일반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내은(2003)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 대한 인식변인으로 가정생활 만족도와 보호자에 대한 인식을 본다.

끝으로 개인에 대한 인식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소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진로관을 갖게 된다. Salmone(1982)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 연구들은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Creed, Prideaux & Patton, 2005; Germeijs & De Boeck, 2002). 문미란과 정진선(2005)의 연구에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직업성숙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계열에 따른 비교는 안선영과 이경상(2009)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전문계-취업희망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인문계-진학희망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낮은 자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석영(2012a)는 중학생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반계 진학희망자와 전문계 진학 희망자가 다를 것을 보였는데, 일반계 진학 희망자는 부모와의관계, 학교에서의 진로경험, 자기존중감이 영향을 주는 반면, 전문계 희망자는 자기 존중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자기 존중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은 두 집단이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 희망 계열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나누어, 진학 희망 계열별 개인 특성 및 진로, 학교, 가정, 개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희망 계열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표본은 3단계 층화집단 표출을 통해 추출되었는데 먼저,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3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지역교육청별로 남녀공학인 학교에 한해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를 표집 했다. 이를 통해 추출된 33개교에서 각 학교당 2개 학급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953명 대상 중 1,945명이 응답하여 99.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무응답
	남		여			
성별	868(45.2)		1,052(54.1)		25(1.3)	
중학교 소재지	강남3구		강북(강남3구 외)		무응답	
	233(12.0)		1,712(88.0)		-	
진학희망 고교계열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미정	무응답
	809(41.6)	382(19.6)	282(14.5)	214(11.0)	175(9.0)	83(4.3)
전체	1,945(100)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조사 도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진행한 「특성화고 진로 이력 분석 연구 2012¹⁾」(오석영 외, 2012)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영역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표 2>에 이를 영역별로 소개하였다. 개인의 특성으로는 학업성취도(국, 영, 수: 하위권 ~ 상위권 정도, 5점 척도)와 사회경제적 배경(아버지 학력: 초등 졸 ~ 대학원(박사) 까지 7점 척도, 경제적 어려움: 고민 없다 ~ 매우 심각하다, 4점 척도)을 보았다.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 포부(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십니까? 고등학교 ~ 대학원 박사, 5점 척도) 및 미래직업 결정여부(예, 아니오)와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정도(업무 내용 및 전망·보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학교에 대한 인식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와 교사에 대한 인식(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예, 아니오)을, 가정에 대한 인식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에 대한 인식(<표-10, 11> 참조, 5점 척도)을, 끝으로 개인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표-12> 참조, 5점 척도)을 측정하였다.

다항 문항으로 구성된 영역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직업준비도 .762, 남녀 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820, 자아존중감이 .84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각 항목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빈도,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학희망 고교계열별로 진로, 학교, 가정, 개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

1)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 연구 2012」는 대부분 한국 고용패널(KEEP)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음(오석영 외, 2012).

분석에서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Levene 통계량의 유의도가 $p < .05$)에는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정에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된 경우에는 Tukey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2> 조사도구

영역	세부내용	문항수(최초,최대)	키워드(관련문헌)
개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수 평균 성적 • 아버지 학력 • 경제적 어려움 	3문항(1, 5) 1문항(1, 7) 1문항(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 및 사회경제적 배경 (권효진 외, 2012)
진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포부 • 미래직업 결정 여부 • 직업준비도 	1문항(1, 5) 1문항(1, 2) 2문항(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포부 (김경년, 2011)
학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사에 대한 인식 	1문항(1, 5) 3문항(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 (문미란, 정진선, 2005)
가정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만족도 • 보호자에 대한 인식 	1문항(1, 5) 7문항(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 (서진희, 이제경, 2009)
개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6문항(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Salmone, 1982)

IV. 연구결과

1. 개인 특성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성취도와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국영수 평균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_{(3,1674)} = 35.190, p < .001$).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율고 진학희망자(3.60), 특목고 진학희망자(3.36), 일반고 진학희망자(3.15), 특성화고 진학희망자(2.71) 순으로 국영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적 배경은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측정되었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특목고 진학희망자(4.58), 자율고 진학희망자(4.53), 일반고 진학희망자(4.11),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74) 순으로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 1584)} = 43.328, p < .001$).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일반고 진학희망자($p < .001$), 일반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0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진학희망자의 아버지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율고 진학희망자(3.23), 특목고 진학희망자(3.20), 일반고 진학희망자(3.17), 특성화고 진학희망자(2.91) 순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1664)} = 5.072, p < .001$).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이 다른 전공계열 희망자들에 비해 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각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및 가정환경을 갖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권효진 외, 2012; 이은아, 2007)와 일치한다.

<표 3> 개인 특성

		N	평균	표준 편차	F	집단간 비교
국영수 평균	일반고 (A)	804	3.15	.969	35.190***	C>B>A>D***
	특목고 (B)	381	3.36	1.192		
	자율고 (C)	279	3.60	1.033		
	특성화고 (D)	213	3.71	.926		
	전체	1,677	3.21	1.058		
아버지 학력	일반고 (A)	760	4.11	1.194	42.328***	C,B>A>D***
	특목고 (B)	360	4.58	1.262		
	자율고 (C)	273	4.53	1.237		
	특성화고 (D)	194	3.74	1.195		
	전체	1,587	4.24	1.248		
경제적 어려움(R)	일반고 (A)	799	3.17	.794	5.072***	A,B,C>D***
	특목고 (B)	379	3.20	.829		
	자율고 (C)	278	3.23	.819		
	특성화고 (D)	211	2.91	.837		
	전체	1667	3.15	.816		

주: *** $p < .001$

2. 진로에 대한 인식

1) 교육포부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계열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인식에

서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진학희망 전공계열에 따른 교육 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hi^2 = 146.774$, $df = 3$, $p < .001$).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일반고 진학희망자($p < .001$), 일반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0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목고 진학희망자는 4~6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들에 비해 높은 교육포부를 갖고 있었다. 일반고 진학희망자는 4~6년제 대학에 약간 못 미치는 교육 수준을 희망하였으며, 특성화고 진학희망자의 경우 2~3년제 대학 정도의 교육 수준을 희망하여 가장 낮은 교육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육포부

		N	평균	표준 편차	χ^2	집단간 비교
교육 포부	일반고 (A)	794	2.83	.853	146.774***	B,C>A>D***
	특목고 (B)	376	3.20	1.151		
	자율고 (C)	278	3.30	.892		
	특성화고 (D)	209	2.33	.951		
	전체	1,657	2.93	.992		

주: *** $p < .001$, 5점 척도(1: 고등학교, 2: 2-3년제 대학, 3: 4-6년제 대학, 4: 석사 5: 박사)

2) 미래직업 결정 여부

다음으로,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특목고 진학희망자(76.1%), 특성화고 진학희망자(69.4%), 자율고 진학희망자(64.4%), 일반고 진학희망자(58.6%) 순으로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 = 35.262$, $df = 3$, $p < .001$).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에 비해 일반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미래의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낮았고, 특성화고 진학희망자의 결정률이 다른 항목과 다르게 높게 나타났다.

<표 5> 미래직업 결정 여부

(단위: 명, (%))

	N	미래직업 결정	미래직업 미결정
일반고	783(100.0)	459(58.6)	324(41.4)
특목고	360(100.0)	274(76.1)	86(23.9)
자율고	275(100.0)	177(64.4)	98(35.6)
특성화고	209(100.0)	145(69.4)	64(30.6)
전체	1,627(100.0)	1,055(64.8)	572(35.2)
χ^2		$\chi^2 = 35.262^{***}$	

주: *** $p < .001$

3) 직업준비도

직업준비도는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은지를 스스로 평정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희망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_{(3,1039)} = 3.720, p < .05$). 미래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을 보면, 특목고 진학희망자(3.50), 자율고 진학희망자(3.35), 일반고 진학희망자(3.31),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2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일반고 진학희망자($p < .05$),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망 및 보수를 보면, 특목고 진학희망자(3.34), 자율고 진학희망자(3.16), 일반고 진학희망자(3.11), 특성화고 진학희망자(2.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1020)} = 5.042, p < .01$).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일반고 진학희망자($p < .01$),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특목고 진학희망자들의 직업준비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고,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의 직업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직업준비도

		N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간 비교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일반고 (A)	445	3.31	.892	3.720*	B>A,D*
	특목고 (B)	286	3.50	.870		
	자율고 (C)	172	3.35	.813		
	특성화고 (D)	140	3.24	.895		
	전체	1,043	3.36	.877		
전망 및 보수	일반고 (A)	439	3.11	.945	5.042**	B>A,D**
	특목고 (B)	283	3.34	.928		
	자율고 (C)	166	3.16	.896		
	특성화고 (D)	136	2.96	.946		
	전체	1024	3.16	.939		

주: * $p < .05$, ** $p < .01$, 5점 척도(1: 전혀 모른다 ~ 5: 매우 잘 안다)

3. 학교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진학 희망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_{(3,1676)} = 4.486, p < .01$).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보통이상(3.48)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목고 진학희망자(3.58), 자율고 진학희망자(3.56), 일반고 진학희망자(3.44),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34)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5$),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p < .0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자율고 희망자는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에 더 가까웠고,

<표 7>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간 비교
일반고 (A)	805	3.44	.906	4.486**	B,C>D*	
특목고 (B)	381	3.58	.955			
자율고 (C)	281	3.56	.856			
특성화고 (D)	213	3.34	.847			
전체	1,680	3.48	.905			

주: * $p < .05$, ** $p < .01$,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게 더 가까웠다.

2) 교사에 대한 인식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른 교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존경하는 교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목고 진학희망자(60.0%), 자율고 진학희망자(59.4%), 특성화고 진학희망자(58.7%), 일반고 진학희망자(51.9%)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chi^2 = 9.906$, $df = 3$, $p < .05$). 본인을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목고 진학희망자(60.5%), 특성화고 진학희망자(53.1%), 자율고 진학희망자(53.0%), 일반고 진학희망자(39.9%)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chi^2 = 49.748$, $df = 3$, $p < .001$). 다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목고 진학희망자(71.1%), 자율고 진학희망자(64.0%), 특성화고 진학희망자(62.9%), 일반고 진학희망자(55.2%)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chi^2 = 29.046$, $df = 3$, $p < .001$). 전반적으로 특목고 진학희망자들이 교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고 진학희망자들이 다른 고교계열 희망자들에 비해 교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 교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N	예	아니오	N	예	아니오	N	예	아니오
일반고	804 (100.0)	417 (51.9)	387 (48.1)	804 (100.0)	321 (39.9)	483 (60.1)	803 (100.0)	443 (55.2)	360 (44.8)
특목고	380 (100.0)	228 (60.0)	152 (40.0)	380 (100.0)	230 (60.5)	150 (39.5)	380 (100.0)	270 (71.1)	110 (28.9)
자율고	278 (100.0)	165 (59.4)	113 (40.6)	279 (100.0)	148 (53.0)	131 (47.0)	278 (100.0)	178 (64.0)	100 (36.0)
특성화고	213 (100.0)	125 (58.7)	88 (41.3)	213 (100.0)	113 (53.1)	100 (46.9)	213 (100.0)	134 (62.9)	79 (37.1)
전체	1,675 (100.0)	935 (55.8)	740 (44.2)	1,676 (100.0)	812 (48.4)	864 (51.6)	1,674 (100.0)	1,025 (61.2)	649 (38.8)
χ^2	$\chi^2 = 9.906^*$			$\chi^2 = 49.748^{***}$			$\chi^2 = 29.046^{***}$		

주: * $p < .05$, *** $p < .001$

4. 가정에 대한 인식

1) 가정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가정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_{(3,1680)} = 4.770, p < .01$).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3.76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진학희망 고교계열별로는 자율고 진학희망자(3.86), 일반고 진학희망자(3.78), 특목고 진학희망자(3.77),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53)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즉,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에 비해 전반적인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표 9> 전반적인 가정생활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간 비교
일반고 (A)	808	3.78	.972	4.770**	A,B,C>D*
특목고 (B)	380	3.77	1.047		
자율고 (C)	282	3.86	.999		
특성화고 (D)	214	3.53	1.019		
전체	1,684	3.76	1.003		

주: * $p < .05$, ** $p < .01$,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2) 보호자에 대한 인식

진학 희망 고교계열에 따른 남성 보호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10> 참조). 전반적으로 남성 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인 항목에서는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임으로써 남성 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진학 고교계열별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자율고 진학희망자(3.60), 특목고 진학희망자(3.52), 일반고 진학희망자(3.43),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05) 순으로 남성 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 = 31.928, df = 3, p < .001$).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율고,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1$). 즉, 특성화고 진학희망자가 다른 고교계열 희망자에 비해 남성 보호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학 희망 고교계열에 따른 여성 보호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참조). 희망진학 고교 계열별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자율고 진학희망자(3.92), 특목고 진학희망자(3.91), 일반고 진학희망자(3.84),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74) 순으로 여성 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1630)} = 3.666, p < .05$).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진학희망자, 자율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즉,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는 자율고, 특목고 진학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보호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표 10> 남성 보호자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 표준편차)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성적에 관심이 많다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	대화를 자주 한다	친구관계를 잘 안다	갈등이 있다(R)	존경한다	전체 평균
일반고 (A)	3.79 1.024	3.79 1.042	4.14 .916	3.54 1.132	3.04 1.157	2.49 1.173	3.70 1.092	3.43 1.042
특목고 (B)	3.84 1.075	3.95 1.019	4.24 .894	3.64 1.175	3.21 1.214	3.07 1.172	3.69 1.160	3.52 1.022
자율고 (C)	3.92 1.011	3.95 .982	4.25 .898	3.65 1.116	3.07 1.141	2.48 1.213	3.63 1.105	3.60 .879
특성화고 (D)	3.59 1.089	3.67 1.039	3.85 .987	3.34 1.198	3.03 1.118	2.94 1.133	3.44 1.174	3.05 1.241
F 혹은 χ^2	F= 3.898**	F= 4.608**	F= 8.984***	F= 3.641*	$\chi^2 = 10.987^*$	$\chi^2 = 12.321^{***}$	F= 2.919*	$\chi^2 = 31.928^{***}$
집단간 비교	B,C>D*	B,C>D*	A,B,C>D**	B,C>D*	B>A*	B,D>A,C*	A>D*	A,B,C>D***

주: * $p < .05$, ** $p < .01$, *** $p < .001$,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남성보호자: 아버지, 또는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삼촌 등.

<표 11> 여성보호자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 표준편차)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성적에 관심이 많다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	대화를 자주 한다	친구관계를 잘 안다	갈등이 있다(R)	존경한다	전체 평균
일반고 (A)	3.91 1.004	4.17 .912	4.08 .949	4.13 .947	3.84 1.006	3.09 1.152	3.72 1.082	3.84 .685
특목고 (B)	4.02 1.048	4.32 .888	4.16 .917	4.19 .980	3.98 1.00	2.97 1.206	3.75 1.159	3.91 .700
자율고 (C)	4.01 1.007	4.35 .791	4.17 .878	4.20 .928	3.88 .999	3.13 1.186	3.71 1.080	3.92 .659
특성화고 (D)	3.84 .990	4.04 .957	3.95 .969	4.02 1.026	3.72 .998	2.96 1.100	3.68 1.066	3.74 .646
F	F= 2.114	F= 7.143***	F= 2.983*	F= 1.794	F= 3.017*	F= 1.770	F= .219	F= 3.666*
집단간 비교		B,C>D** C>A*	B,C>D*		B>D*			B,C>D*

주: * $p < .05$, ** $p < .01$, *** $p < .001$,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여성보호자: 어머니, 또는 실제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할머니, 이모 등

5. 개인에 대한 인식

진학 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특목고 진학희망자(3.76), 자율고 진학희망자(3.55), 일반고 진학희망자(3.44), 특성화고 진학희망자(3.41)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1655)} = 19.605$, $p < .001$).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즉, 특목고 진학희망자가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표 12> 자아존중감

(단위: 평균, 표준편차)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전체 평균
일반고 (A)	3.32 1.012	3.70 .972	3.58 .939	3.27 .918	3.19 .939	3.60 .930	3.44 .707
특목고 (B)	3.79 .943	4.08 .850	3.94 .910	3.51 .922	3.46 .947	3.78 .918	3.76 .706
자율고 (C)	3.42 .984	3.79 .915	3.71 .909	3.36 .914	3.28 .913	3.73 .972	3.55 .679
특성화고 (D)	3.33 .996	3.79 .917	3.60 .917	3.22 .876	3.12 .851	3.46 .975	3.41 .685
F 혹은 χ^2	$\chi^2 = 63.838^{***}$	$\chi^2 = 43.635^{***}$	$\chi^2 = 47.400^{***}$	F = 7.125 ^{***}	$\chi^2 = 28.440^{***}$	F = 6.924 ^{***}	F = 19.605 ^{***}
집단간 비교	B>A,C,D ^{***}	B>A,C,D ^{***}	B>A,C,D ^{***} C>A [*]	B>A,D ^{**}	B>A,C,D [*] C>D [*]	B>A,D [*] C>D ^{**}	B>A,C,D ^{**}

주: * $p < .05$, ** $p < .01$, *** $p < .001$,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계열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나누어 각 희망진학 고교계열에 따른 개인 특성(학업성취, 가정환경) 및 진로, 학교, 가정, 개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에 대해 개인 특성은 뚜렷하게 진학 희망 계열별 차이를 두고 있었다. 먼저 학생들의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율고,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 학력에 대해서도 높은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일수록 자율·특목고, 일반고 순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는 자율고, 특목고, 일반고 진학희망자 간에는 통계적 유의가 없었지만 이들 세 계열과 특성화고 진학 희망 학생들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특성화고 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권효진 외, 2012),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열화 정책이 예비 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수직적 계층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적, 가정환경에 대한 진학 계열 서열화 조짐은 연구문제 2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서

도 일부 반영되어 나타났다. 먼저 교육포부(희망교육수준)에 있어서 자율·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고학력의 학력을 갖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래 직업 결정여부를 살펴보면,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순으로 미래 직업을 결정 여부를 보여,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미래직업을 일찍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고 일반고 진학희망자들이 그 결정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가 타 계열보다 교육목적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게 때문에 학교 설립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직업에 대한 지식정도를 묻는 직업준비도에서도 나타나는데 특목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들은 낮은 정보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를 앞의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일반고 진학 희망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준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성화고 진학희망집단은 충분치 않은 직업 정보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어, 중학교 단계에서의 각 집단별 적절한 진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나와, 개인 특성(학업성취도, 가정환경)에 대한 순서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학교생활이 미래 학력 수준이 높은 수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이 제공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특성화고 진학희망자가 일반고 희망자들보다 높게 나타나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학력 지향적이거나 진학 중심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래직업 결정여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직업에 최근 마이스터고 설립, 진로와 직업과목 실행,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등의 직업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진학희망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성화고 진학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보호자에 대한 인식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성보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보호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계열별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성화고 진학희망자가 부모에 대한 낮은 관계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학희망 고교계열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 점수는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순으로 높았으며, 특목고 진학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에 자아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안선영, 이정상, 2009). 이러한 결과는 첫째, 일반고 내 자율고, 특목고, 일반고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특목고 진학희망자를 일반고 집단에서 분리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둘째, 현 정부 내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으로 마이스터고 진학 희망학생이 특성화고에 포함되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순수 일반고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진학희망자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교계열에 따른 진로, 학교, 가정, 개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부터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계열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권효진 외, 2012; 김정년, 2011; 이은아, 2007). 또한,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이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망자에 비해 전반적인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고 진학희망자와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래직업의 결정여부나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오히려 일반고 희망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특목고 및 자율고 진학 희망자들은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나 가정환경, 진로에 관련된 인식에 있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 수직적 계층화가 예비 고등학생의 배경 및 인식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됨을 알 수 있고(Lucas, 2001),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유도 및 마이스터고 설립과 같은 직업학교 활성화 정책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미래 직업을 결정한 학생들의 직업계 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이 미래직업에 대한 결정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reed et al., 2005).

따라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중학교 단계부터 진학에 대한 서열화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희망자에게 학업성적외 소질과 적성을 통한 직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복선형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다만 계열 서열화를 극복 할 수 있는 교육적 삶의 다양화가 교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체험과정을 통해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목고나 자율고가 입시 사관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질과 적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입시제도와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에 대한 포부가 높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들이 진학 후 질 높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혜, 박소영 (2008).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향. 보도자료. 2009년 12월 10일.
- 권효진, 김수영, 박선희, 김경숙 (2012). 고교유형별 학생집단 특성 분석. **제1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8-110.
- 김경년 (2011). 고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선발이 학생들의 직업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9(4), 121-145.
- 김병숙 (2005). 중학생의 진로 의식 및 진로 경로 분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45-272.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화, 이정희 (2003). 학부모의 학교 선택 수요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13(1), 57-76.
- 김혜래 (2007). 중학생의 진로결정 실태와 진로성숙도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3, 51-74.
- 문미란, 정진선 (2005).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을 중심으로.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71-193.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안선영, 이경상. (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 결정요인 및 결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4), 81-99.
- 윤종혁 (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석영 (2012a).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학희망계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오석영 (2012b).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17
- 오석영, 임언, 진미석, 이강주, 임정만 (2012). **특성화고 진로이력분석 연구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손준중(2010). 한국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에 대한 이해와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0(4), 139-169.
- 이내은 (2003)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

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아 (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주동범 (2001). 고등학교 계열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관, 교육관 및 직업관의 차이분석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6, 1-17.

차성현, 민병철, 변종석, 김성식, 강경완, 김준엽, 박소영 (2010).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 설계: 자율형 고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Bachhuber, T. (1992). 13 Ways to Pass Along Real Information to Students. *Journal on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27, 67-70.

Creed, P.A., Prideaux, L.-A., & Patton, W.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397-412.

Feingberg, W. & Soltis, J.F. (2009). *School and socie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Germeijs, V., & De Boeck, P.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Heyns, B. (1974). Social selection and stratification within schoo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1434-1451.

Keller, B.K., & Whiston, S.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Lucas, S.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ac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Salomone, P.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 -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Super, D.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논문접수 2012년 11월 2일 / 1차 심사 2012년 12월 10일 / 게재승인 2012년 12월 11일

* 오석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M.P.A.)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육학 박사(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기업교육, 평생교육, 직업진로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다.

* E-mail: syoh@krivet.re.kr

* 임정만: 세종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jmanlim@gmail.com

Abstract

The Study on Career Re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ison by Their Expected High School Tracks

Oh, Seok-young*

Lim, Jeongman**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status of 3rd grad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recognition on career pla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teachers, and self-efficiency and analyzes how recognition status can be interpreted by current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the diversification on high school track. The high school tracks are classified to four - Special purposed high school, Autonomic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and 1,945 students in 33 schools respond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the group has higher family incomes, father's education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end to go on Special purposed high school, Autonomic high school, while the lower family incomes and background want to go on Vocational high school. The statistical difference is not often presented between those who want to go on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This finding stands in parallel with previous literature which insist on inequality on education as well as supports the potentials of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School Tracking, Career Cognitions

* Research fellow in KRIVET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in KRIVET